

금강 유역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 충남 부여 백마강교 인근에서 복합수질오염사고 대응 체계 합동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금강 유역의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교 인근 금강 본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유류 및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 수질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부터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방제 작업, 인명 구조, 수질 조사,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체계를 점검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금강유역환경청, 금강물환경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소방 활동 및 인명 구조, △오일펜스 설치 및 취수 중단 등 확산 방지 조치, △오염물질 제거, △수질 채수 및 순찰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가 보유한 유회수기 등 전문 방제 장비와 오일펜스, 흡착포, 유처리제 등 다양한 방제 물품이 동원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훈련 장소 인근의 상·하류 순찰에 무인기(드론), 보트, 무인선 등 첨단 장비도 투입되어 입체적인 감시 및 대응 능력을 시연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향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환경오염 재난(수질)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합동 방제훈련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1-7072)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책임자	부 장	서인석 (032-590-3901)
		담당자	대 리	이재영 (032-590-3911)



□ 추진 배경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수습 전반에 대한 대처능력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훈련 개요

- 일시 : '25.5.21.(수) 13:30~
- 장소 : 충남 부여군 백마강교 인근(금강 본류)
- 주최(주관)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부여군, 한국환경공단
- 참여기관 : 금강물환경센터, 부여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훈련 주요내용

- 사고상황 : 부여군 백마강교 인근 교통사고로 인한 유류(B-A유) 및 화학물질(에틸벤젠) 유출, 물고기폐사 등 금강 본류 복합사고 발생(취수장 및 수생태 피해우려)

○ 훈련 구성

- ① 상황전파·인명구조 : 관계기관 상황전파·보고 및 인명구조 등 실시
- ② 오염확산 확인 : 드론·선박 활용 저지선 구축을 위한 확산범위 확인
- ③ 위기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실시 및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④ 방제작업 : 물리(오일펜스 등)·기계적(유회수기 등) 방제 등 오염물질 제거
- ⑤ 어류폐사 조치 : 폐사어 수거(보트, 무인선 등), 수질분석 등 조치
- ⑥ 훈련 강평 : 훈련 종료보고, 관계기관 총평 및 개선점 논의

※ 훈련 외 행사로 공단 방제 장비·물품 등 현장 전시 교육 병행

□ 혼련 상황도

